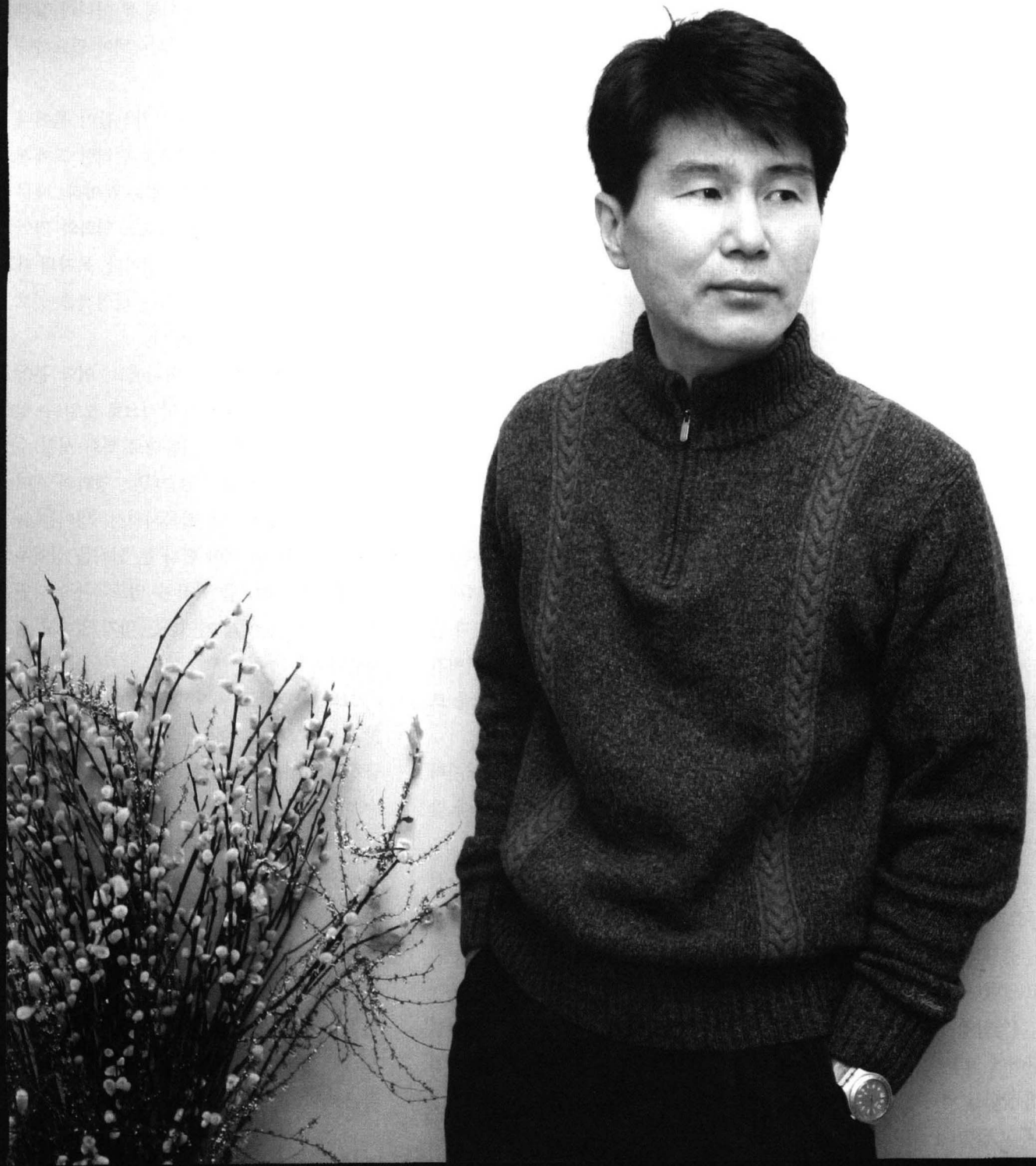


결핍과 고독에서 건져 올린 관계의 따뜻함 소설가 윤대녕

평범한 이들에게 신화적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는 작가



아갈수록 어려워지고, 함께할수록 외로워지는 일이 우리의 '살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런 결핍과 고독이 내 안에만 머문다면 치명적인 독(毒)일 수 있지만 특별한 주인을 만나 예술 작품이 된다면 다른 남루한 영혼을 치유하는 위무(慰撫)일 수 있다.

소설가 윤대녕 씨는 생의 고독과 결핍을 형상화하는 데 탁월한 작가이다. 읽고 나서도 쉽게 책을 떠나지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게 하는 힘이 그의 문장에 깃들어있다. 타인의 영혼을 통해 내 안의 비의를 엿본 기분. 그는 흔치 않은 글을 쓰는 작가이다.

윤대녕 씨를 만난 날은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는 흐린 날이었다. 최근에 출간된 그의 소설집 《제비를 기르다》 중 〈고래등〉이란 단편에서처럼 '양철지붕 밑에' 고래등을 걸어두었으면 적당할 하늘의 농담과 대기의 밀도였다. 이번 소설집에 실린 8편의 중·단편은 3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 한 해에 쓰인 것들이다. 그는 2003년 "벽이 가로막힌 느낌"에서 오는 슬럼프 때문에 제주행을 단행했다. 2005년 제주에서 올라왔을 때 〈고래등〉과 〈탱자〉 2편의 소설만 "수중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의 슬럼프는 이제 극복된 듯하다.

"리듬이 깨어지고 글이 안 써지는 슬럼프는 어떤 작가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글에 대한 강박관념을 크게 갖지 않고 작가로서 살아온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생명의 덩어리인 바다를 보면서 많이 회복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2년의 시간이 전환점이 되어준 셈이죠."

그래서일까. '전환점'을 지난 그의 소설들은 "가까스로 글을 되찾았다"는 절박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전작들에 비해 한결 편안하고 따뜻해졌다. 〈제비를 기르다〉나 〈연(鰲)〉 같은 작품은 이제껏 그가 천착해왔던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독'에 대한 또 다른 변주로 읽히지만 〈탱자〉 〈뭇구멍〉 〈마루 밑 이야기〉 등은 그가 이제 좀 다른 지점에서 사람과 관계를 보기 시작했음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관계가 주는 따뜻함은 이전 그의 소설에서는 찾기 힘든 정서였다.

"저는 늘 소설이 이야기보다는 문학이라는 학문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쓸 때도 내 안의 철학적 구현에 집중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철학적 구현 못지않게 이야기를 통한 독자들과의 공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살이와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전보다는 각도가 좀 넓어지고, 시선이 다양해졌다고 할까요. 이번 소설집을 쓰면서 내가 갖고 있던 철학적 삶의 주제들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문학 철학'의 길을 수정한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그의 관념적 지향이 이제 시간의 결마다 용해되어 삶의 비루함조차 포용할 수 있는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까. 좀 '친절(?)'해진 그의 소설이 다행스럽기까지 한 것은 그래서이다. 평범한 이들의 일상을 매끄럽게 기워내 그들에게 신화적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는 솜씨는 여전하지만 소설집 곳곳에는 독자의 '호흡'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느껴진다.

"평범한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문학입니다. 그러한 바탕 안에서의 문학적 추구나 소설의 발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소설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웃음) 앞으로는 줄거리틀에도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올해로 등단한 지 17년이 되는 소설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흘러보낸 이야기만큼이나 앞으로 그에게서 흘러나올 이야기들이 기다려진다. 그것은 순정한 '글쟁이'로 살아가는 그의 치열함이 침체에 빠진 한국 문단을 '피 돌게' 했으면 하는 간절함 때문이기도 하다.

"문학은 결국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가는 우리 문화나 시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통해 독자와 질문하고 답하는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부인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단절이 자주 일어나는 사회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문학의 위기'를 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쓰는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깃든 전통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시대와 지금을 이어주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필**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